

조음위치동화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박희정*

광주여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신혜정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에서 수의적으로 적용되는 조음위치동화의 특성을 언어치료사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조음위치동화가 나타나는 발음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4점 척도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조음의 위치동화가 양순음의 위치동화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둘째, 동화주의 발성유형별 평가 결과는 평음이 경음 및 기음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위치동화유형에 따른 동화주의 발성유형별 평가에서는 치조음의 연구개음화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어휘의 출현빈도와 평가점수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음운환경을 고려한 고빈도 어휘와 저빈도 어휘 단어쪽에 대한 어휘빈도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말장애 진단 및 중재와 음성언어 발음교육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 조음위치동화, 연구개음화, 양순음화, 어휘빈도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말·언어장애 아동의 평가 및 중재 시 특수교사나 언어치료사는 개별 음소의 발음뿐만 아니라 선·후행하는 음소에 따라 변화되어 실현되는 음소의 발음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한다. 현재 발음관련 정보는 매우 빈약한 편이며, 그나마 표준발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적인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 화자의 실제발음이 표준 발음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 제1저자, 교신저자(parkhj@kwu.ac.kr)

못한다(이동석, 2004). 박정자(2007)는 현행 초등학교의 국어 교육에서는 교과서의 지도 내용 중 음성 언어, 특히 표준 발음과 관련하여서 비표준 변이형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말·언어장애 진단 및 교육을 위해 음소에 대한 문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실현되는 말소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국어의 필수적인 음운현상 뿐만 아니라 수의적으로 적용하는 음운현상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음운현상 중 자음동화는 특정 자음이 인접한 자음의 소리 특징을 닮아가는 현상으로 조음방법동화와 조음위치동화가 있다. 표준발음법 제5절 음의 동화에는 다음의 (1)과 같이 조음방법동화인 구개음화, 비음화, 유음화만을 국어의 필수적인 음운현상으로 인정하고, 제21항에서는 다음 (2)의 조음위치동화인 연구개음화와 양순음화를 표준발음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조음방법동화

① 구개음화

- 곧이듣다[고지듣따], 곧이[구지], 미닫이[미다지]

② 비음화

- 먹는[명는], 국물[궁물], 짚는[깡는]
- 담력[담 : 녁], 침략[침낙], 강릉[강능]

③ 유음화

- 난로[날 : 로], 신라[실라]

(2) 조음위치동화

① 연구개음화

- 감기[감 : 기](×[강 : 기]), 옷감[온감](×[옥감])

② 양순음화

- 젓먹이[전머기](×[점머기]), 꽃밭[꼴뻘](×[뽀뻘])

조음방법동화는 특정 자음이 다른 자음의 조음 방법에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동화이며, 조음위치동화는 선행 음절의 발음이 후행 음절의 두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어 두 자음이 같은 조음 위치를 가진 음으로 실현되는 동화이다.

이기문, 김진우, 이상억(1984)은 변자음화로 조음위치동화를 설명하였다. 즉 중자음(ㄷ, ㅌ, ㅈ계)은 변자음(ㄷ계, ㅌ계)이 후행하면서 그 변자음에 동화되어 변자음과 동일한 위치의 음으로 실현된다. 이 현상은 역행 동화 현상이기 때문에 후행하는 변자음의 종류에 따라 전부 변자음(양순음계)이면 (3)의 ①과 같이 전부 변자음으로, 후부 변자음(연구개음계)이면 (3)의 ②와 같이 후부 변자음으로 동화된다. 조음위치동화는 모두 역행동화로서 양순음화이거나 연구개음화가 된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의식적으로 분명히 말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변자음화의 예

① 전부 변자음화

- 치조음 → 양순음: 안보[암보], 전보다[점보다]

② 후부 변자음화

- 치조음 → 연구개음화: 발까지[박까지], 잔까지[장까지]
- 양순음 → 연구개음화: 감기[강기], 밥그릇[박끄륻]

인접한 두 자음이 닮는 동화현상은 공식적으로, 통시적으로 많은 언어에서 나타나는 언어보편적인 현상이지만(권경근, 2010), 일상적인 발화에서는 조음상의 편의, 화자의 발화 스타일이나 속도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어의 조음위치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 소리는 표준만 아닐 뿐 아나운서 발화나 자유 발화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음운 현상이므로 역시 음운론적 설명의 대상이 된다(신지영, 차재은, 2003). 박정자(2007)는 음 산출 실험을 통하여 위치동화는 비표준적인 발음이지만 일상발화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강창석(1989)은 적용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다는 식의 수의적 규칙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최희선(2005) 역시 위치동화를 발음오류로 규정하였다.

한국어의 치조음은 양순음과 연구개음에 동화되고, 양순음은 연구개음에 동화되지만 양순음은 치조음에 동화되지 않고, 연구개음은 양순음과 치조음에 동화되지 않으므로 연구개음 > 양순음 > 치조음의 유효성 위계가 성립된다(박선우, 2011). 이와 같은 위치동화의 실현현상은 강옥미(2003)의 조음위치 강도와도 일치한다. 신지영, 차재은(2003)은 자질 위계를 이용하여 양순음과 치경음은 연구개음으로 변하지만 연구개음은 양순음과 치경음으로 변한다고 하지 않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한편 Kochetov & Pouplie(2008)는 한국어의 위치동화 중 양순음의 연구개음화는 치조음의 양순음화와 연구개음화보다 더 수의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박선우(2011)는 또한 한국어 조음위치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음의 위치동화에서 동화주(trigger: 동화를

일으키는 인자, 동화인자)는 유표적인 분절음인 치조음이나 양순음이 되고, 피동화주(target: 동화를 겪는 대상, 동화대상)는 무표적인 분절음인 연구개음이나 양순음이 된다고 하였으며, 위치동화에 대한 보편적 가설인 연구개음 > 양순음 > 치조음인 위계를 양순음 · 연구개음 > 치조음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말장애 진단 및 중재 시 개별 음소 오류 패턴, 음운체계, 음절구조, 초분절적 요소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음운환경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특정 음운환경에서 음운변동을 관찰하려는 시도가 국내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음운현상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수의적으로 발생하는 음운현상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특수교사와 언어치료사가 조음음운 지도를 위해서는 개별 음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음소 연쇄현상에 의한 필수 음운현상 이외의 수의적 음운현상에 대한 음성학적 기초지식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의적 음운현상인 조음위치동화에 대한 언어치료사의 주관적 평가를 통하여 동화유형별 및 어휘빈도 효과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지역적 변수를 배제하기 위해 서울, 전라도, 경상도에서 근무하는 언어치료사 51명(남자 2명, 여자 49명)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해 주었다. 이들은 모두 말장애 중 발음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조음음운장애 진단 및 중재 경험이 있었다.

2. 평가 도구

본 연구에서는 국어의 위치 동화가 화자의 발화 유형과 속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선호하는 발음을 선택하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음성언어의 지각 실험에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발음을 소신껏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호영, 2009; 박선우, 2010).

평가 어휘는 피동화주가 비음인 위치동화의 환경을 가진 단어 18개를 선정하였다. 피동화주를 비음으로 설정한 까닭은 피동화주가 비음인 경우 위치동화가 가장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이석재 1999, 박선우 2010). 또한 음절구조와 어휘출현빈도도 고려하여 평가어휘를 선정하였다. 음절구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음절어로 구성하였으며, 어휘 출현빈도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김한샘(2005)의 ‘현대국어 사용 빈도 조사 2’의 일반어휘 통계를 참고로 고빈도어와 저빈도어로 선정하였다. Bybee(2001)는 고빈도 단어는 저빈도 단어보다 규칙적인 음운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문법적 유추적 변화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의하면 위치동화는 유추현상이 아니라 음성학적 동기를 가진 음운현상이므로 고빈도어에서는 잘 일어나고 저빈도어에서 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박선우, 2010 재인용) 단어빈도효과에 대한 고려도 하였다. 어휘 출현빈도는 동화유형과 발성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휘빈도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하였다. 평가 어휘 및 빈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음위치동화 평가 어휘 및 빈도

| 동화 유형 | 어휘 빈도 발성 유형 | 고빈도어 | | 저빈도어 | |
|------------|----------------|------|------|------|----|
| | | 어휘 | 빈도 | 어휘 | 빈도 |
| 치조음의 양순음화 | 평음 | 안보 | 152 | 안배 | 5 |
| | 경음 | 손뺨 | 33 | 원뿔 | 16 |
| | 기음 | 한편 | 488 | 연표 | 27 |
| 치조음의 연구개음화 | 평음 | 인간 | 2983 | 안구 | 6 |
| | 경음 | 한껏 | 88 | 잔피 | 6 |
| | 기음 | 만큼 | 897 | 눈코 | 11 |
| 양순음의 연구개음화 | 평음 | 임금 | 332 | 임계 | 14 |
| | 경음 | 잠깐 | 231 | 참깨 | 6 |
| | 기음 | 암컷 | 73 | 집칸 | 4 |

선정된 어휘들은 예문을 이용하여 설문 조사방식으로 설문조사지로 제작하였다. <표 2>에 사용된 예문들의 일부를 제시하였으며, 예문들은 모두 ‘21세기 세종 계획’의 ‘말뭉치 용례 간단 검색기’를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4. 자료 처리

설문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동화유형별, 발성유형별 주관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를 실시하였다. 어휘빈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고빈도와 저빈도 간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05$ 이며, SPSS 20.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연구 문제에 이용된 종속 변수들은 독립 변수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표화 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위치동화유형 평가

위치동화유형별 평균 점수가 중앙값인 2.5보다 높은 경우는 동화된 발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평가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순음의 연구개음화에 대한 평가는 2.5보다 낮은 부정적인 평가인 반면 치조음의 양순음화와 치조음의 연구개음화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표 4> 위치동화유형별 기술통계량

| 치조음의 양순음화 | | 치조음의 연구개음화 | | 양순음의 연구개음화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3.01 | 0.798 | 3.00 | 0.836 | 2.39 | 0.855 |

동화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일원배치분산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치조음의 양순음화와 치조음의 연구개음화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양순음의 연구개음화는 치조음의 양순음화 및 치조음의 연구개음화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양순음의 연구개음화는 치조음의 위치동화보다 동화의 정도가 약하다는 선행연구 결과(Kochetov & Pouplie, 2008; 박선우, 2011; 박정자, 2007)와 일치한다. 즉 양순음의 연구개음동화는 치조음의

동화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 일어날 경우에도 적절하지 못할 발음으로 인식될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화주의 발성유형별 평가

1) 전체 위치동화에 대한 동화주의 발성유형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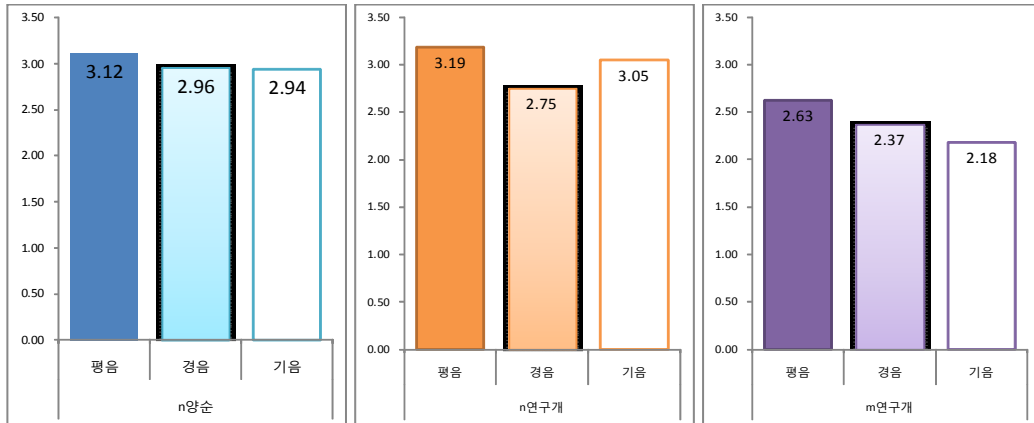
동화주의 발성유형별로 위치동화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화주가 평음인 환경이 경음이나 기음인 환경에 비하여 전체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발성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일원배치분산 분석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경음과 기음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평음은 경음 및 기음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동화주의 발성유형 기술통계량 및 변량분석 결과

| 동화주의 발성유형 | 평균 | 표준편차 | 자유도 | F | 유의확률 |
|-----------|------|------|-----|--------|------|
| 평음 | 2.98 | .820 | 2 | 10.306 | .000 |
| 경음 | 2.70 | .831 | | | |
| 기음 | 2.72 | .886 | | | |

2) 위치동화유형에 따른 동화주의 발성유형별 평가

조음위치동화유형별로 동화주의 발성유형별 주관적 평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을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조음의 양순음화와 치조음의 연구개음화는 모든 동화주의 평균 발성유형이 중앙값인 2.5 이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양순음의 연구개음화에서는 동화주가 경음 및 기음의 평균은 중앙값 2.5보다 낮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평음도 중앙값 2.5보다 높지만 2.63으로 다른 위치동화유형의 동화주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평균이 나타났다.



(n양순 : 치조음의 양순음화, n연구개음 : 치조음의 연구개음화, m연구개 : 양순음의 연구개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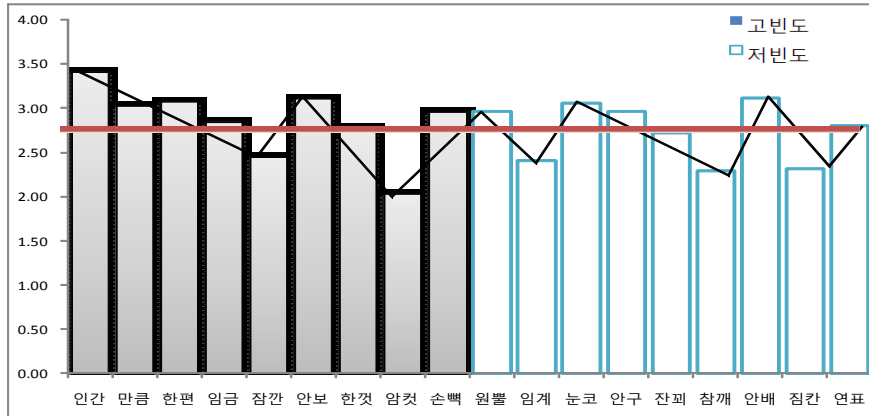
<그림 1> 위치동화유형에 따른 동화주의 발생유형별 평균 비교

부정적 평가를 받은 양순음의 연구개음화를 제외하고 위치동화유형에 따른 동화주의 발생유형별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치조음의 양순음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치조음의 연구개음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치조음의 연구개음화는 경음과 평음, 경음과 기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치조음의 연구개음화는 경음의 평균이 평음 및 기음의 평균과 점수 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동화주가 경음일 때 평음이나 기음에 비해 협착공간이 넓어 혀의 높이가 더 높이 올라가고(신지영, 1998), 선행 자음의 제스처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권경근, 2010) 위치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된 연구 결과가 도출된 것은 설문조사의 특성상 문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방법이 동일한 선행연구(박선우, 2010) 결과와도 일치한다.

3. 어휘빈도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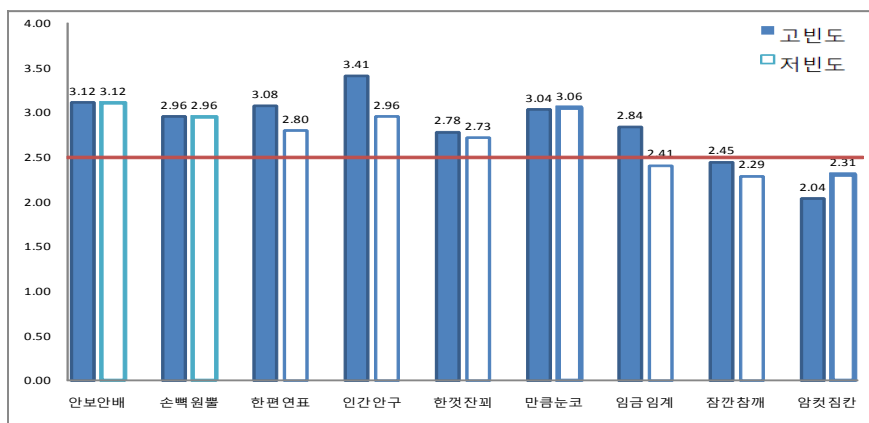
고빈도 어휘와 저빈도 어휘로 분류하여 어휘빈도와 평가 점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평가 어휘 중 고빈도 어휘는 저빈도 어휘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을 예상하였을 때 어휘의 출현빈도는 주관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순위이다. <그림 2> 어휘 출현빈도 순위별로 평가점수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 어휘빈도 순위별 전체 평가 점수

어휘 출현빈도와 평가점수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한 결과 상관계수 .486으로 0.0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 사이의 일차적인 관계가 얼마나 강한가를 측정해주는 지수이므로 0.7~0.4의 경우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어휘빈도에 대한 분석 후 음운론적 환경이 동일한 고빈도-저빈도 단어쌍에 대한 빈도효과를 비교하였다. 총 9쌍의 평가어휘 중 5쌍이 고빈도 어휘가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암컷-짐칸, 만큼-눈코에서는 오히려 저빈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안보-안배, 손뻐-원뿔은 고빈도와 저빈도 어휘의 평가 점수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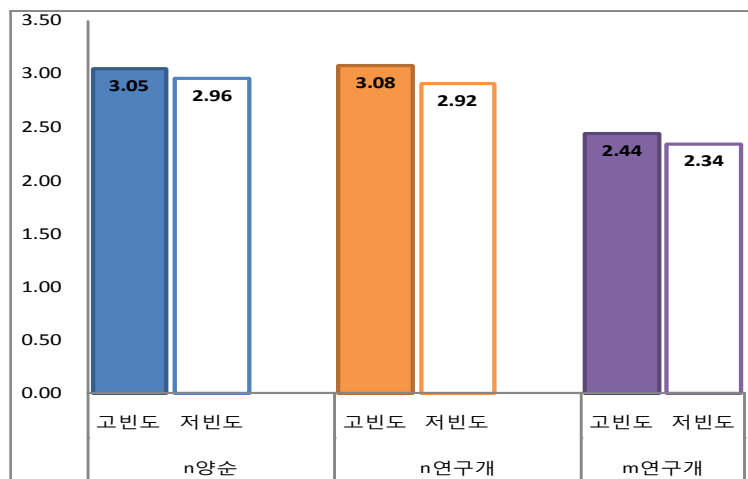
<그림 3> 음운환경별 고빈도-저빈도 단어쌍

음운론적 환경이 동일한 고빈도-저빈도 단어쌍에 대한 어휘빈도 효과를 통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표 6>에 어휘빈도별 기술통계량과 대응표본 *t*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6> 어휘빈도별 기술통계량과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 어휘빈도 | 평균 | 표준편차 | <i>t</i> | 유의확률 |
|------|------|------|----------|------|
| 고빈도 | 2.86 | .86 | 3.004 | .003 |
| 저빈도 | 2.74 | .85 | | |

어휘빈도 효과의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위치동화유형 및 동화주의 발생 유형별로 고빈도 어휘와 저빈도 어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위치동화유형별 고빈도와 저빈도에 대한 평균을 <그림 4>에 도식화하였다. 모든 위치동화유형에서 고빈도 어휘가 저빈도 어휘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양순음의 연구개음화는 고빈도어휘와 저빈도 어휘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n양순 : 치조음의 양순음화, n연구개음 : 치조음의 연구개음화, m연구개 : 양순음의 연구개음화)

<그림 4> 조음위치동화유형별 고빈도-저빈도 단어쌍 평균비교

위치동화유형별 어휘빈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7>와 같이 치조음의 연구개음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7> 치조음의 연구개음화의 어휘빈도 기술통계량 및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 어휘빈도 | 평균 | 표준편차 | t | 유의확률 |
|------|------|------|-------|------|
| 고빈도 | 3.08 | .84 | 2.613 | .010 |
| 저빈도 | 2.92 | .83 | | |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목적을 논의하고자 한다. 표준발음법에서는 조음위치동화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어 화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 현상을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있다.

조음위치동화에 대한 동화유형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양순음의 연구개음동화는 치조음의 양순음동화 및 치조음의 연구개음 동화에 비해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보편적 음운이론에서 한국어의 조음위치 유표성 위계는 연구개음 > 양순음 > 치조음 순이었으나, 박선우(2010)는 연구개음 > 양순음의 유표성 위계를 증명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Jun(1995) 역시 양순음이 연구개음화를 겪는 위치동화는 한국어에서만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박정자(2007)는 양순음의 연구개음화가 보다 적게 나타나는 현상이 조음점 간의 거리가 멀고, 의미의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특수교사나 언어치료사들이 말·언어 장애 아동을 지도할 때 조음위치동화 특히 치조음의 동화는 음절구조와 표준발음뿐만 아니라 음운체계와 일상생활 속에서 화자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고려하여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조음위치동화에 대한 어휘빈도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어휘 출현빈도에 대한 고빈도 어휘와 저빈도 어휘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위치동화유형별 어휘빈도 효과는 치조음의 연구개음화만 고빈도 어휘가 저빈도 어휘에 비해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Bybee(2001)와 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박선우, 2010 재인용). 그러나 치조음의 연구개음화 이외의 조음위치동화인 치조음의 양순음화와 양순음의 연구개음화는 빈도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어휘빈도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음소 빈도효과와 관련된 것인지, 평가 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발음과 상관없이 문자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의적 음운현상인 조음위치동화에 대한 언어치료사의 주관적 평가를 통하여 동화유형별 및 어휘빈도 효과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동화유형별 평가 결과 치조음의 양순음화와 치조음의 연구개음화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양순음의 연구개음화는 치조음의 양순음화 및 치조음의 연구개음화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치조음의 위치동화가 양순음의 위치동화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둘째, 동화주의 발생유형별로 위치동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경음과 기음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평음은 경음 및 기음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치동화별 동화주의 발생유형을 분석한 결과 치조음의 연구개음화만 동화주의 발생유형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어휘 출현빈도와 평가점수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음운론적 환경이 동일한 고빈도-저빈도 단어쌍에 대한 어휘빈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치조음의 위치동화보다는 양순음의 위치동화에서, 고빈도 어휘보다는 저빈도 어휘에서 조음위치동화가 실현되었을 때 적절하지 못한 발음으로 인식될 확률이 높다. 또한 초기 읽기 지도 시에는 동화주의 발생유형에 대한 자소 빈도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수교사나 언어치료사들이 말·언어장애 아동을 지도할 때 조음위치동화와 같은 수의적인 음운현상을 간과하고 철자나 표준발음법만 고려하여 지도한다면, 전체적인 말명료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수의적 음운현상인 조음위치동화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말·언어장애 아동을 지도하는 언어치료사 및 특수교사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음운환경과 어휘를 이용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설문지 대신 청각적 자극을 통하여 동화의 정도를 평가하여 문자의 영향을 배제한 연구 결과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21세기 세종계획(<http://www.sejong.or.kr>): 한민족 언어 정보 검색.
- 강옥미 (2003). **한국어 음운론**. 서울: 태학사.
- 강창석 (1989). 현대 국어 음운론의 허와 실. **국어학**, 19, 3-40.
- 권경근 (2010). 국어의 인접 자음의 동일성에 대하여. **우리말연구**, 27, 55-72.
- 김한샘 (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국립국어원.
- 박선우 (2008). 한국어 위치동화의 실험음성학적 분석. **언어연구**, 25(2), 45-65.
- 박선우 (2010). 한국어의 위치동화에 대한 분석 -적합도 설문평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62, 143-167.
- 박선우 (2011). 한국어 조음위치의 유표성에 대한 검토. **한국어학**, 53, 249-279.
- 박정자 (2007). **국어 음운 변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 신지영 (1998). 한국어 /ㄷ, ㅌ, ㅌ, ㅈ, ㅉ, ㅊ/의 조음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어학** 31, 53-80.
- 신지영, 차재은 (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서울: 한국문화사.
- 이기문, 김진우, 이상억 (1984). **국어음운론**. 서울: 학연사.
- 이동석 (2004). 효과적인 표준 발음 교육. **말소리**, 51, 17-37.
- 이석재 (1999). 제약 SHARE CONDITION: 자음의 조음간극과 위치동화 양상의 상관성, **어학연구**, 35(3), 489-518.
- 이호영 (2009). 서울 토박이들의 경음화 선호도, **말소리와 음성과학**, 1(2), 151-162.
- 최희선 (2005). **국어의 표준 발음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Jun, Jongho. (1995). *Perceptual and Articulatory Factors in Place Assimilation: An Optimality Theoretic Approach*. Ph.D. dissertation. UCLA.
- Kochetov, Alexei., & Marianne, Pouplier. (2008). Phonetic variability and grammatical knowledge: an articulatory study of Korean place assimilation, *Phonology*, 25, 399-431.

A Study of Perceptual Analysis on Korean Place Assimilation

Park, Hee Jung

Kwangju Women's University

Shin, Hye Jung

Kwangju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lace assimilation of Korean is not a obligatory but optional phenomenon. However, the optionality of phonological phenomena occur frequently in Korean fast speech rat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aspects of the Korean place assimilation for children with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problems. The Korean place assimilation was perceptually evaluated by a speech-language pathologist using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ronal sound /n/ is disposed to undergo assimilation, but labial sound /m/ is not. Second, According to the place of articulation of a trigger, plain stop was preferred to aspirated stop and tensed stop. Also, the Velarization of coronal in the place of articulation of a trigger was only significant in this study. Finally The between high frequency words and low frequency word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is study.

Key Words : place assimilation, velarization, labialization, word frequency

논문 접수: 2012. 05. 02 심사 시작: 2012. 05. 16 게재 확정: 2012. 06. 16